

### ■ 對MERCOSUR 수출품 통관 유의사항

- 우루과이가 남미공동시장(MERCOSUR)의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밀 무역의 중계기지로서 악용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음.
- 브라질의 산토스항 등 주요 항구를 대상으로 브라질 세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어, 정상가격 이하 통관(Under-Value), 원산지 중도 변경 또는 정상적 통관 자체가 어려운 품목들에 대한 처리가 과거에 비해 훨씬 힘들어졌음.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경통과가 용이한 우루과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.
- 브라질 일간지 Zero Hora가 5월 21일자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비정상적 국경통관 물품의 대부분은 아시아산 제품으로 아시아로부터 직접 또는 마이애미를 통해 들어 오고 있으며, 이중 중국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 주된 품목은 전자제품, 식물류, 화학제품 및 무기류임.
- 아울러 고가제품의 경우 밀반입을 하기 위해 많게는 컨테이너당 3만불 까지 검은 돈이 오가고 있으며,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최종 목적지인 상파울로 까지는 운송거리가 2,000Km에 달하고 있어 전자제품 등 고가제품의 경우 중무장 차량이 컨테이너 화물차량을 에스코트하는 것으로 알려짐.
- 또한 적하물품에 대한 서류도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은 무적(화물없음) 차량 또는 브라질로부터 수입된 상품의 하자발생에 따른 반품 등의 명목으로 기재되고 있음. 이에 따라 브라질에 적을 둔 화물차량이 우루과이에 물품을 인도하고 빈 차로 돌아가는 차량도 이러한 비정상적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- 이 신문은 이러한 불법거래에 국제적인 조직('Mafia')이 관여하고 있으며, 아랍인, 요르단인, 브라질 및 우루과이인과 더불어 한국인도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.
- 남미시장 통합이 진전되면 될수록 우루과이 등 회원국의 관세청도 외국화물의 반입, 반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, 아시안産 제품의 경우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수출업체 및 현지 진출업체는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관서류 작성 등 관련 절차이행에 보다 유의해 야 될 것으로 보임.

(문의처 : 몬테비데오무역관 박성기 [skpark@kotra.or.kr](mailto:skpark@kotra.or.kr))